

# 나눔터

2000 · 1

제33호

## 보관용

새 천년에 우리는 **2**

신년기획 **3**

2000년 월별 행사 일정

여기는 상담실 **7**

1999년도 상담현황 분석(조중신)

열린터 1999년도 열린터 현황 분석(오희옥)

성폭력문제연구소 전국 성폭력상담통계 조사를 마치고...(김지혜)

성평등교육문화센터 **12**

성교육, 나부터 하자.(송경영)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기획 경찰간담회, 사이버토론회

오늘의 쟁점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지위(김효선)

12기 사단법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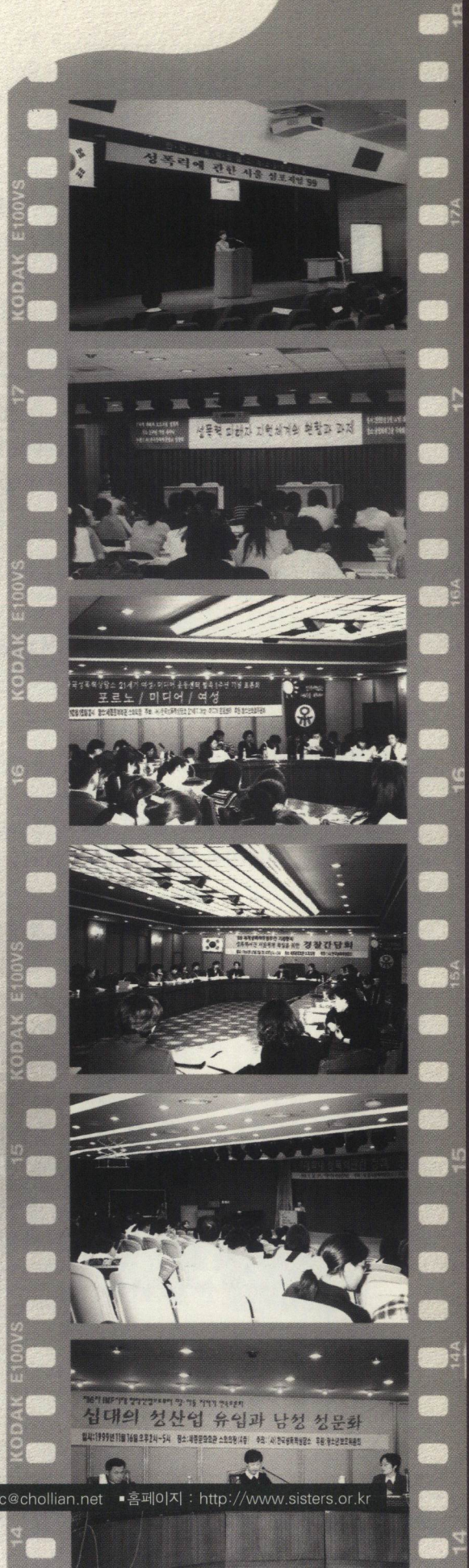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일시: 1999년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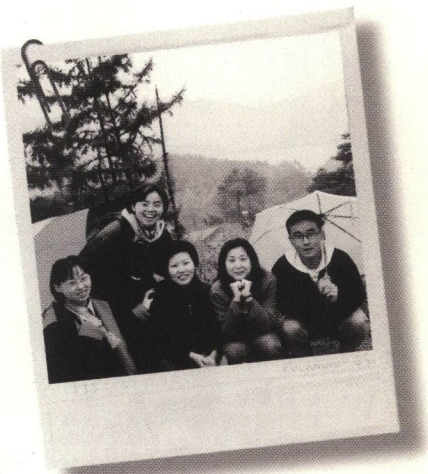
지금에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지킴이 활동을 되 돌아보면 뿌듯한 느낌, 뭔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상담자로서의 부족함을 매일 깨달 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밖에 없다. 그나마 법지모(법정지원모임) 활동마저도 없었 다면 나의 게으름으로 교육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을텐데. 아마 나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지킴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리 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교육때보다는 실제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 다. 계속 발전하는 상담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한다. 매 주 오는 지킴이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한 달에 1-2번 오게되면 날이 갈수록 어색해 지고 자신 없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물론 바위에 무엇을 새기려면 수없이 새기고 새겨야 하지만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횟수를 새겨 야 하는 두뇌적인 특수구조로 법조문하나 외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거기다가 전혀 강제적이지 않은 상담소 분위기는 나를 더 내태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 다(핑계). 6개월 동안 상담했지만 다음에 교육받을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없는 나!

부끄럽지만 얼굴에 첩판을 깔고 새 천년에도 계속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대차게 했다. 혹시 상담소는 날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시 약속을 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진짜다 진짜라니까요...

<13기 지킴이 백정선>

새 천년에 상담소에 바란다.

"모든 피해 여성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고 "모든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것을 인식도 못하고, 나하곤 전혀 상관없는 듯 살아오다가 상담원 교육을 받고, 많이 배우면서 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다녔고, 배운 것을 나누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어느새 네 해가 지나 2000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상담소에 와보면 항상 바빠서 인사도 못하고 말없이 전화 상담실로 들어가 버리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어찌다 사무실이 한가해서 물어보면 다들 출장으로 바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들 열심히 일하는걸... 적은 인원으로 하루하루를 팍팍 채우는 상담소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저 이제껏 해온 것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또 한해를 맞이하면 되겠지요.



<9기 상담원 서민자>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그 변화를

뒤쫓기 위해 사람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고 있다. 무엇이 먼저인가. 사람이 세상 것 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세상의 것이 사람들을 뒤쫓게 하는 것인가. 새해가 달려왔지만, 우리는 어제처럼 예전처럼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다. 달 라진건 우리도 알 수 없는 무형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새 시대로 몰고 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그 변화를 우리 가 주도해가야 하리라.

그러하여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기를... 이제껏 과거의 전철 속에 우리가 묻혀 있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을 우리 가 만들어가기를...



## 새로운 각오로 새 천년 희망의 꽃대를 세우며...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



새 천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천년의 세월들이 맞닿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회와 새로운 천년대의 기대로 예전과는 다른 설렘이 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지난 한 세기의 성취와 문제에 대한 평가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미래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는 평등, 평화, 화해를 슬로건으로 내거는 새로운 천년에는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의한 희망을 토대로 한 것이다. 21세기는 또한 20세기 갈등과 대립, 지배와 피지배적 구조를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공존, 인종과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에 기반한 공동체적 생존방식이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첫발을 내딛는 올해는 더욱 새롭고 어께가 무겁다. 특히 올해는 상담소가 개소한 지 햇수로 10년, 만으로 9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10년의 역사를 점검,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전망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상담소는 9년 동안 방점을 찍어 왔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성폭력 추방 및 예방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성폭력에 관한 일차적 토대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올해부터 새 천년의 첫 번째 과제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바로잡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한다.

상담소 개소 당시의 상황은 감추어진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미흡하나마 법·제도적 장치마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고 이제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다.

성폭력 문제가 우리사회 여성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이를 토대로 형성된 여성 억압적 성문화와 이중적 성 규범, 왜곡된 성 인식의 문제가 성폭력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자, 성폭력 문제를 성적 권리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피해자적, 보호적 측면에서 인식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폭력을 순결 상실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정조 보호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성들의

인권확립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문화에의 도전과 대응전략이 없는 우리의 운동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문제의식 때문이다.

또한 상담소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한 대응 활동의 폭을 성문화로 넓히고 나아가 '여성의 성'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 자율성, 책임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제기하여 여성의 성이 더 이상 대상화·객체화되어 섹슈

얼리티 영역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여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주체성 회복,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성문화 바로 세우기',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여성의 성적 권리 찾기' 운동은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싸워 온 어떤 대상 보다 어려운 상대인 것이다. 왜냐하면 5천년의 역사와 문화와의 싸움이며 힘을 가진 기득권자의 약자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성문화, 인간 중심적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올해는 상담 영역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한 시설내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외국인 여성 노동자 성폭력 문제 등 특수 상담 영역에 대한 상담과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을 인권 차원에서 제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포함된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작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상담소의 그동안의 성과와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상담소 많은 자원활동가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침을 재정비하여 21세기 여성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담소는 올해를 상담소 활동의 한 단계를 마무리·재정비하고 재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새 천년, 희망의 꽃대를 세우며 이러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전보다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자원위원, 이사, 회원, 후원회원 그리고 상담소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눔력**



## 일반상담부

상담부의 올해 활동목표는 내담자 지원체계의 강화(대상별 특수상담 확대), 여성주의적 상담의 전문성 향상이다.

-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신과의사·전문심리상담가·성폭력상담원들이 모여 효율적인 심리상담지원을 모색하는 사례연구와 워크샵, 경찰·사법연수생·변호사·법정지원팀 등이 모여 법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각 분야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 또한, 성폭력상담의 전문화를 위해 상담원 재교육프로그램 강화, 면접상담과 집단상담의 전문적 이론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상담원 스터디모임, 심리상담학 특강, 전화 및 면접상담사례연구와 수퍼비전 회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각 유형별 사례를 질적 분석, 특수개별사례를 추후 지속관리하여 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특수영역 대상의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추후 결과까지 적극적 지원, 보육시설 내 피해를 연구소 보육시설 내의 성교육과 병행하여 적극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연구와 훈련을 실시하여 전담요원화 하려 한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 상담의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피해자 부모 상담교육의 모형을 개발하여 피해자어머니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남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여성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열린터

2000년 열린터에서는 퇴소자들의 피해재발을 예방하고 생활적응에 힘을 주기 위한 퇴소자 근황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 등 지속적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내담자 지원강화 및 지원체계 활성화, 열린터 후원사업 강화, 장·단기 프로그램 체계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 퇴소자의 지속지원 프로그램은, 근황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 9월 개소이래 120여 명의 퇴소한 내담자의 근황을 알아보고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 연락이 끊긴 내담자는 우선 주거지와 연락처를 파악한 후 퇴소 후의 생활, 사회에서의 적응의 정도와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감정변화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퇴소 후 생활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퇴소 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열린터 입소전후의 변화를 살펴 보면서 열린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 내담자 지원강화 및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내담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지속적 집단상담 실시, 심리검사지 활용의 다각화, 병원비·학비 지원의 적극적 모색에 주력할 것이며,
-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일대일 후원 강화, 기업후원 강화 등에 힘을 기울여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현재까지 실시되어온 내담자 지원프로그램을 정리 분석·평가하고 그를 기초로 장·단기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자 한다.

## 정보사업부

온라인에서의 성문화 운동기반 마련, 정보화를 통한 상담소 업무의 효율화를 2000년 정보사업부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팀 구성, 홈페이지 구축, safe online 캠페인 등 PC통신과 인터넷 공간 내의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 성폭력 추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 또한, 정보화를 통한 상담소 업무의 효율화와 회원/후원회원 메일링리스트 작성/운용을 통해 상담소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상담소 활동의 홍보, E-Mail 상담, 성폭력관련 자료제공, 사이버토론회 등이 있다.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는 2000년 주요 활동목표를 성평등 지향의 성교육 전문화에 두고,

- 어린이 성교육 방안으로 어린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교육방안을 모색하고,
- 청소년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을 일선에서 일차적으로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실시, 발달단계별, 대상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평등 지향의 성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장애시설 아동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주력하며,
-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 및 정책제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에서는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성의 상품화와 성의 이중적 구조를 비판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 지속적으로 모니터 작업을 전개해나가며,
- 통신상의 모니터 공간을 통해 미디어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미디어 비판시각을 길러 수동적 수용자에서 미디어의 적극적 사용자로 바로 서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1999년도의 연속작업으로 잘못된 성의식을 정착시키는 포르노 문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포르노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자 한다.

## 인권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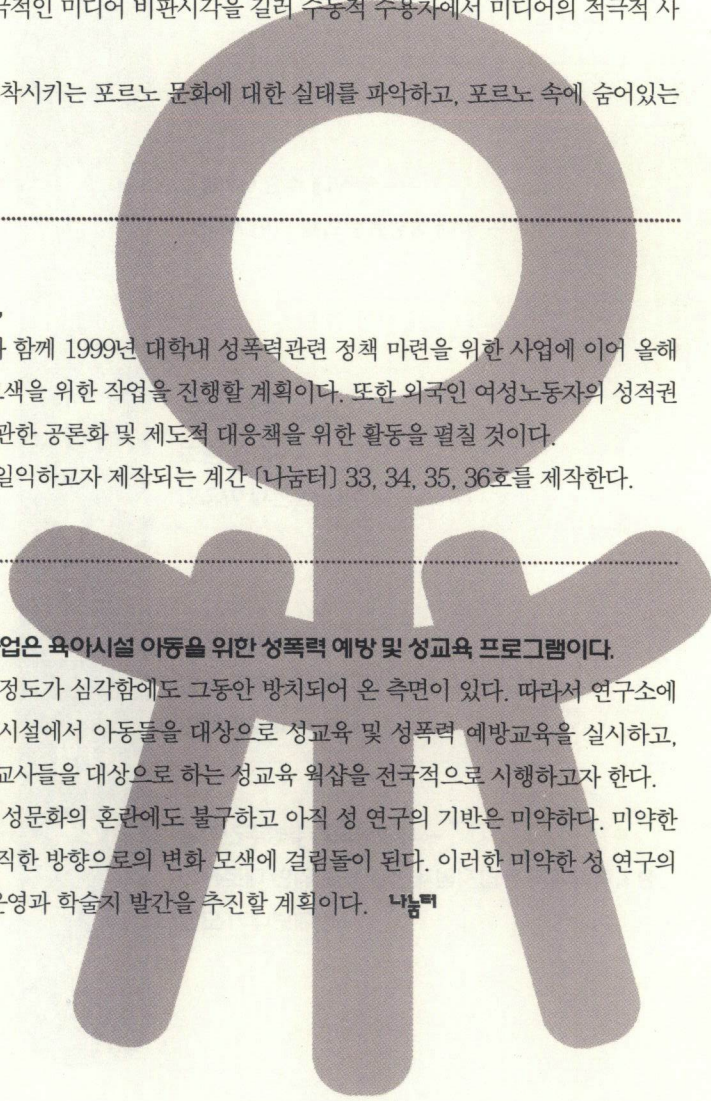
2000년 상담소에서는 인권부분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내부사건 이슈화, 외부적 사안 대응 등 항시적 사업과 함께 1999년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대학내 성차별 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적권리를 주제로 관련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태에 관한 공론화 및 제도적 대응책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또한, 상담소활동을 알려내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일익하고자 제작되는 계간 [나눔터] 33, 34, 35, 36호를 제작한다.

## 성폭력문제연구소

올해에 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육아시설 이동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 시설 아동들은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방치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직접 시설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화하여 시설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성 논의와 성문화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 연구의 기반은 미약하다. 미약한 성 연구의 기반은 다양한 성문화 운동의 진행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미약한 성 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구회원제도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눔터**





# 2000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년 월별 행사 일정

	<b>1월</b>	-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17-21) - 나눔터 제작(33호)
- 총회(12) - 제14기 상담원 교육 - 열림터 입 · 퇴소자 집단상담(22-25)	<b>2월</b>	
- 개소9주년기념 상담소 후원의 밤(13)	<b>3월</b>	- 직장내 성희롱 상담분석 보도
	<b>4월</b>	
- 정신대 수요시위(14) - 학내 성평등문화를 위한 세미나	<b>5월</b>	- 심리상담 심화 워크숍(30) - 나눔터 제작(34호) - 사이버토론회
	<b>6월</b>	
- 나눔터 제작(35호) - 사이버토론회 - 상담소 전체 야유회	<b>7월</b>	-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 - 법적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 열림터 입 · 퇴소자 집단상담
- 기금마련 호프 - 시설아동을 위한 성교육 지방순회 워크숍 - safe online 캠페인	<b>8월</b>	
- 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 - 한해보내기 모임	<b>9월</b>	- 제15기 상담원 교육 - 시설아동을 위한 성교육 지방순회 워크숍
	<b>10월</b>	
	<b>11월</b>	- 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사이버 토론회 - 나눔터 제작(36호)
	<b>12월</b>	



# 1999년도 상담현황 분석

조중신(본 상담소 일반상담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1999년 한해동안 <성폭력상담의 전문화>, <내담자 지원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특수영역별, 대상별로 내담자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에 힘써왔으며 상담업무를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사건 의료 지원체계 심포지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성교육·성상담 교사 워크숍,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토요 법률상담지원 변호사·사법연수생 모임,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 성폭력 후유증 치유 집단상담,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회의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1) 1991년 4월 개소 이래 99년 12월 31일까지 총 25,767회, 17,24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99년도 상담 건수는 3,692건(5,397회)으로 98년도 2,948건(4,285회)보다 25.2% 증가하였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연도	상담건수	상담횟수
91, 92	2,028	2,834
93	1,182	1,765
94	1,723	2,553
95	1,238	2,050
96	2,138	3,459
97	2,295	3,424
98	2,948	4,285
99	3,692	5,397
총	17,244	25,767

## 2) 99년도 상담현황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기할 만한 사항

### 1.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 피해 상담 폭주

99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조항이 신설

되고,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다.(직장내 강간 192건, 성추행 173건, 성희롱 205건 총 570건으로 전체 성폭력사건 2,564건의 22.2%를 차지 : 98년도는 304건으로 14.6%) 이는 직장내 성폭력의 급증이라기 보다는 대처방법 등이 미약해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가 징계와 시정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들이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표2> 성폭력피해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친족			직장내		동네 사람	데이트 상대	동급생, 선배	교사, 강사	성직자	기타	모르는 사람	미상
	부	혈족	인척	상사, 동료	고객, 기타								
	139	82	60	491	79								
2564건 (100%)	281 (11.0%)	570 (22.2%)	273 (10.7%)	162 (6.3%)	132 (5.1%)	71 (2.8%)	32 (1.2%)	413 (16.1%)	490 (19.1%)	140 (5.5%)			

### 2. 미성년자 피해 신고의무화에 따른 상담지원 증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성폭력피해를 인지하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사, 시설관계자, 이웃이 어린이 피해를 인지한 후 상담소에 의뢰하여 열린터 입소, 고소 등의 과정을 밟으며 지속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교사나 동급생, 선배 등에 의한 학교 내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3> 성폭력피해자의 연령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건수	1447 (56.4%)	504 (19.7%)	319 (12.5%)	191 (7.4%)	103 (4.0%)	2564건 (100%)





### 3. 시설 내 시설관계자들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지원

상담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은폐·지속되고 있어 보호시설(보육원, 장애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보호시설 원장, 교사, 선배 등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온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하여 집단상담과 법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4.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심각

정신장애를 겪는 여성들, 특히 어린 소녀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피해는 피해자 자신의 판단능력, 방어능력 부족으로 은폐가 지속될 뿐 아니라 드러내도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아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상담소에서는 사례를 분석하여 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장애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여성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법적 절차의 지원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5. 스토킹피해에 대한 상담과 대책 모색

98년 하반기 이후 계속 증가한 스토킹 피해사례가 99년에도 258건(312회)이 접수되어 전체상담의 7%에 육박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스토킹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표4〉 내담자의 상담내용

상담 내용	강간 1196건 (32.4)		강간 미수	성추행 1269건 (34.9%)						스토킹	성상담	기타	총계
	강간	특수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통신매체 음란	남성 피해	몰래 카메라					
건수 (%)	1065 (28.8)	131 (3.5)	99 (2.7)	838 (22.7)	252 (6.8)	83 (2.2)	92 (2.5)	4 (0.1)	258 (7.0)	338 (9.2)	532 (14.4)	3692건 (100%)	
	성폭력 2564건 (69.4%)							기타 1128건 (30.6%)					

### 6. 성직자 성추행사건 심각성 부각

성직자의 가해사건은 조직에서의 특수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은폐되어 왔으며 드러내도 법적 처벌이 막연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상담소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상담과 법적 대응을 지원해왔고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와 조정을 촉구해왔다. 6월에는 교회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례를 취합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 7.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사기 강간 증가

IMF로 인한 사회불안정으로 각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인지 강도강간, 윤간, 특수강간과 강간 후 협박, 금품갈취 등의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 98년에 110건이던 특수강간이 99년에는 13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척을 가장하여 중매를 주선한 후 금품갈취와 협박을 하며 강간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의뢰되어 신중 범죄의 양상으로 여겨진다.

### 8. 성폭력피해자 측이 무고죄, 폭행죄로 처벌당하는 사례가 많음.

상담의 40%이상이 법적인 문의를 하고 있으며 370건이 고소되었다. 검찰에서는 무고를 엄중히 취급하는 추세이며, 합의를 유도해내기 위한 고소나 성인여성의 데이트강간은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리된 후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나 남편, 남자친구가 가해자와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고소 이전에 충분한 정보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눔터**

〈표5〉 상담 후속처리 상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총
상담횟수	445	424	457	478	493	510	2807	506	519	419	378	430	338	2590	5397
상담건수	291	301	302	347	333	354	1928	349	366	289	246	288	226	1764	3692
재상담	154	123	155	131	160	156	879	157	153	130	132	142	112	826	1705
면접상담	47	11	27	40	52	46	223	50	48	26	30	60	44	258	481
서신상담	3	3	4	3	5	2	20	3	7	4	3	3	1	21	41
PC상담	16	7	6	9	9	14	61	13	16	22	15	18	11	95	156
병원연계	27	8	30	38	25	32	160	28	34	26	20	26	10	144	304
고소건	31	22	36	33	37	25	184	46	23	28	23	31	35	186	370
경찰연계	6	3	4	6	16	15	50	7	11	3	10	8	11	50	100
토요법률상담	18	3	5	13	14	14	67	7	7	10	17	9	18	68	135
법정지원	2	1	1	5	1	2	12	1	1	2	1	3		8	20
진정서충부	2	1			1		4	2	3	2	3			10	14
자료지원	25	3	6	15	15	18	82	14	13	18	21	9	19	94	176





〈표6〉 99년도 상담유형분석표

유형	피해자/가해자관계	피해자					소계	고소	백분율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1196)	일 반 강 간 (1065)	친족	아버지	12	47	25	6	1	91	4	3.55	
			아버지	8	18	15	5	2	48	2	1.13	
			인척	15	9	5	0	0	29	2	1.13	
		직장	상사/동료	110	10	0	0	0	120	13	4.68	
			거래처/고객	29	2	0	0	0	31	8	1.21	
			기타	8	0	0	0	0	8	1	0.31	
		아는 사람	동네사람	40	25	24	5	0	94	19	3.67	
			데이트상대	97	39	0	0	5	141	9	5.50	
			성직자/신도	22	1	0	0	0	23	0	0.90	
			선후배/동급생	8	13	2	0	1	24	1	0.94	
	학교		선후배/동급생	22	6	1	0	0	29	1	1.13	
			교사/강사	0	7	1	0	0	8	0	0.31	
	학원		선후배/동급생	1	2	0	0	0	3	0	0.12	
		교사/강사	3	6	1	0	0	10	1	0.39		
	기타	103	32	4	2	8	149	22	5.81			
	모르는 사람	77	66	27	2	8	180	25	7.02			
	미상	35	20	5	1	16	77	7	3.00			
	특수 강 간 (131)	아는 사람 (45)	친족	인척	1	0	0	0	0	1	0	0.04
				상사/동료	5	0	0	0	0	5	1	0.20
			거래처/고객	3	0	0	0	0	3	0	0.12	
동네사람		2	3	1	0	1	7	2	0.27			
데이트상대		5	1	0	0	0	6	3	0.23			
선후배/동급생		0	4	0	0	0	4	0	0.16			
학교		선후배/동급생	3	1	0	0	0	4	1	0.16		
		기타	12	3	0	0	0	15	4	0.59		
모르는 사람		43	23	4	0	7	77	22	3.00			
미상		4	4	0	0	1	9	1	0.35			
강간 미수 (99)	아는 사람 (73)	친족	아버지	1	0	0	0	0	1	0	0.04	
			인척	2	0	0	0	0	2	0	0.08	
		직장	상사/동료	22	0	0	0	0	22	4	0.86	
			거래처/고객	3	0	0	0	0	3	1	0.12	
			동네사람	3	1	2	0	0	6	2	0.23	
		데이트상대	8	1	0	0	0	9	0	0.35		
		선후배/동급생	2	1	0	0	0	3	1	0.12		
		학원	교사/강사	1	0	0	0	0	1	0	0.04	
			기타	21	2	0	0	3	26	4	1.01	
		모르는 사람	16	3	0	0	4	23	9	0.90		
		미상	2	1	0	0	0	3	1	0.12		
		소계		749	351	117	21	57	1295	171	50.51	
		성추행 (1173)	일 반 성 추 행 (838)	친족	아버지	3	12	17	11	1	44	5
아버지	5				8	12	9	0	34	0	1.33	
인척	13				5	5	5	0	28	0	1.09	
직장	상사/동료			149	5	0	0	2	156	10	6.08	
	거래처/고객			16	0	0	0	0	16	2	0.62	
	기타			1	0	0	0	0	1	0	0.04	
아는 사람	동네사람			12	14	59	71	4	160	32	6.24	
	데이트상대			6	0	0	0	0	6	0	0.23	
	성직자/신도			7	0	0	1	0	8	0	0.31	
	선후배/동급생			9	7	3	1	0	20	0	0.78	
	학교			선후배/동급생	23	4	2	1	0	30	2	1.17
				교사/강사	6	9	11	0	0	26	0	1.01
	기타			1	0	0	0	0	1	0	0.04	

유형	피해자/가해자관계	피해자					소계	고소	백분율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일 반 성 추 행 (252)	아는 사람 (234)	학원	선후배/동급생	1	0	2	8	1	12	1	0.47	
			교사/강사	3	5	3	8	0	19	3	0.74	
			기타	7	1	1	9	1	19	4	0.74	
		기타	43	13	16	13	3	88	14	3.43		
		모르는 사람	56	16	43	27	7	149	47	5.81		
	미상	6	3	6	3	3	21	3	0.82			
	성 추 행 (234)	아는 사람 (234)	친족	아버지	1	1	1	0	0	3	0	0.12
				상사/동료	184	0	0	0	4	188	3	7.33
			직장	거래처/고객	13	0	0	0	0	13	1	0.51
				기타	4	0	0	0	0	4	0	0.16
동네사람			5	1	0	0	0	6	1	0.23		
학교		성직자/신도	0	1	0	0	0	1	0	0.04		
		선후배/동급생	1	0	0	0	0	1	0	0.04		
		선후배/동급생	1	0	1	0	0	2	0	0.08		
		교사/강사	4	1	0	0	0	5	0	0.20		
		학원	1	1	0	0	0	2	0	0.08		
기타	7	0	0	0	2	9	0	0.35				
모르는 사람	11	0	0	0	1	12	3	0.47				
미상	4	0	0	0	2	6	0	0.23				
통신 매체 이용 음란 (83)	전화 (64)	아는 사람	17	0	1	0	1	19	3	0.74		
		모르는 사람	24	0	1	0	4	29	1	1.13		
		미상	11	1	0	0	4	16	0	0.62		
	PC (19)	아는 사람	7	0	0	0	0	7	0	0.27		
		모르는 사람	4	0	0	0	1	5	1	0.20		
		미상	4	0	0	0	3	7	0	0.27		
	몰래카메라 (4)	아는 사람	1	0	0	0	0	1	0	0.04		
		모르는 사람	2	0	0	0	0	2	0	0.08		
		미상	1	0	0	0	0	1	0	0.04		
		남성피해 (92)	아는 사람	19	38	17	3	2	79	5	3.08	
모르는 사람	5	7	1	0	0	13	0	0.51				
소계		698	153	202	170	46	1269	141	49.49			
성폭력피해(상담) 총계 (백분율 %)		1447	504	319	191	103	2564	312	100.00			
재상담	스트킹	아는 사람	218	2	0	0	4	224	7			
		모르는 사람	22	0	0	0	1	23	0			
		미상	9	0	0	0	2	11	0			
	성관련 상담	252	122	18	8	38	338	1				
	기타	205	173	15	4	35	532	9				
	계	706	297	33	12	80	1128	17				
	1차 상담 통계	2153	801	352	203	183	3692	329				
	강간	491	254	127	20	5	897	20				
	강간미수	41	5	1	0	0	47	4				
	성추행(통신매체)	216	48	174	126	7	571	15				
성희롱	41	3	1	0	1	46	0					
남성피해	10	7	13	1	2	33	0					
몰래카메라	4	0	0	0	0	4	0					
스트킹	52	1	0	0	1	54	0					
기타	39	11	2	1	0	53	0					
계	894	329	318	148	16	1705	39					
총계	3047	1130	670	351	199	5397	368					





# 1999년도 열림터 현황 분석

오희옥(본 상담소 열림터 부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가 1994년 9월 개소한 이후 1999년까지 127명이 본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들의 입소경로는 본 상담소에서 51명(40%), 사회단체 34명(27%), 구청 등 행정기관 12명(9%), 경찰, 학교 순으로 이루어졌다. 열림터가 지속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입소자중 82명(80%)이 근친피해자이며 이들의 연령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가 각각 48%(50명), 30%(31명)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인원의 77%가 강간피해라는 점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의 심각성과 심리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한해동안 열림터에서 생활한 내담자는 피해자의 가족 2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다. 가족을 제외한 18명의 내담자 중 어린이·청소년이 10명, 성인이 8명이었으며 이들은 전국 각 지역의 사회단체(10명)나 본 상담소(9명)에 상담을 의뢰한 후 열림터로 연계되어 입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사회단체에서 열림터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져 연계인원이 늘어남을 알 수 있으며 본 상담소 내에서 내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볼 때 여전히 강간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친피해가 성추행에서 강간으로 진행된 후에야 외부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 〈피해유형 및 연령〉

'99계 (94-99)	피해 유형			피해자 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7세미만)	어린이(7-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세이상)
18(104)	15(80)	2(19)	1(5)	(5)	2(31)	8(50)	8(18)

\* ( )는 1994년 9월 ~ 1999년의 피해자(가족은 표에서 제외)

### 〈보호기간〉

기간	계	7일 이내	8일-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99인원(94-99)	20(127)	3(14)	6(30)	6(55)	(22)	5(5)

### 〈지원실적〉

지원내용	고소	병원치료	전문심리상담
'99년 건수/횟수('94-'99)	2건(27건)	43회(189회)	10회(180회)

\* 전문심리상담은 외부의 전문심리상담가를 말함.

열림터 내담자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6개월 이상 열림터에서 생활하면서 매주 상담 및 성교육 학습, 미술,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열림터 입소자 중 지금까지 29건(1명의 가해자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음)의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99년에는 2건에 대해서 고소와 재판이 진행되었다. 열림터에서는 각 단계에서 내담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토요법률상담과 개인상담, 경·검찰, 재판동행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입소 시에 실시하는 산부인과 진료를 포함한 병원진료는 내담자의 신체적 안녕과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심도있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연계되는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은 피해후유증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담자들의 50%이상이 학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전학을 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담자들은 개인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시도하였고 열림터에서의 공동생활 속에서 가족애와 형제애를 느껴가는 시간들을 가져왔다.

### 〈상담 후 조치 결과〉

'99계('94-'99)	귀가	복지시설입소	현 입소인원
20(127)	13(94)	1(27)	6(6)

열림터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은 1999년 입소자 20명 중에 14명이다. 5년 동안 121명이 입소 후 퇴소하였는데 이들은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곳, 자기집이나 친척집 등으로 귀가하거나 장기시설로 거처를 옮긴다. 99년 퇴소자 중 귀가가 13명이고 다른 복지시설로 입소한 경우가 1명이다.

미성년자이고 근친피해자인 경우 퇴소 후 거처를 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피해 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고 장기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새로운 환경과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눔터**





# 전국 성폭력상담통계 조사를 마치고...

김지혜(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12월 10일 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주관으로 <폭력 없는 사회  
가꾸기>라는 주제 하에 토론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여성연합 소속 단체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적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통계 조사 결  
과가 발표되었다. 본 상담소는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소속 단체들  
의 성폭력 상담 통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의 성폭력 상담소  
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현재 성폭력 상담에 대한 전국적 차원에서의 통계조사는 보건복지  
부에서 실시하는 정도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담자, 상담방  
법, 피해유형, 피해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후속처리 등이다. 이들은 단  
순분류로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성폭력의 특성이 기타로 묻히기도 하  
고, 1건의 성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상담건수  
로 처리되고 있다. 그 이외에 실시되고 있는 상담통계 조사는 각 상담  
소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조사는 민간 단체 차원에서  
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조사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상담은 상담의 영역에서 먼저 본격화되었다기  
보다는 성폭력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유롭고 인간  
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여성운동의 일환으  
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폭력 상담의 성격은 현재 성폭력 상담을 본격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담소들 또한 여성단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본격적인 성폭력 전문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 상담소는 47개소로 늘어났고, 여성연  
합 성과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성폭력 상담을 받고 있는 기관도 29개소  
에 해당한다. 성폭력 상담소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성폭력 상담으로서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강  
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성폭력 상담소들의 당면과제는 성폭력 상담에 대한 전문성  
을 유지하면서도 운동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폭력 상담에 대한 전국  
적인 통계조사는 단순히 전국적 조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성폭력에 대  
한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설정된 전국적인 연대  
기반은 개별 단체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과는 다른 비중을 가지고 사  
업이 추진되도록 힘을 신게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폭력의 유형은 현재 강간과 성추행으로 분류되

고 있지만, 성희롱이 새로이 생겨나기도 하고, 스토킹이 성폭력의 한 유  
형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들이 어느 상담소에서는 분  
류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상담소에서는 전혀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라  
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희롱이 얼마가 증가했다거나 피해유형의 어느  
부분이 감소추세에 있다가 하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된  
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 아래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서 성폭력 상담과 이를  
통한 여성운동은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번 조사는 미약하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된 첫 조사라는 의미를 가  
진다.

물론 전국적인 통계조사를 한다는 것이 모든 상담소들이 동일한 상  
담일지를 가지고 일치된 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상  
담소들이 동일한 상담일지를 가질 필요도 없고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일치된 통계를 산출하는 틀거리를 만들어 나가  
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 틀은 사회적 변화와 성폭력 추이에 따  
라서 상담소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상담은 전화상담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  
의 특성상 상담일지에 체크되는 것이 많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되는 부  
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일지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실  
상 많은 시간을 요하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앞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폭력상담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해 나가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통계 자료의 기본적 틀을 구  
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상담일지에 대한 기본  
적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이는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  
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과 세부분류에 대한 전  
문적 타당성을 고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연합 소속의  
상담소들만이라도 먼저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해  
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공동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작업, 그리고  
각 실무 담당자들과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  
야 할 것이다. **나눔터**





# 성교육, 나부터 하자.

송경영(난우중학교 교사)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남성' 또는 '여성'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는다. 성이 인간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성교육은 당연히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어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성교육은 지나치게 편협한 틀 속에 묶여서 성기 중심적인 생물학적 성지식만을 중요하게 가르쳐 왔던 게 아닌가 싶다. 성은 인간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갈 사람에게 성교육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성교육의 바탕에는 '인간관계교육'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또 인간관계의 바탕에는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성교육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인 성지식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윤리 교육, 남녀 평등적인 인간 관계를 가르치는 교육, 남녀간의 의사소통기술 교육, 성적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생명의 존엄과 숭고함을 알려주는 교육, 자아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을 길러주는 교육,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등등 그 어느 것도 성교육에서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은 학교에서도 가정교과나 보건교과의 몫만이 아니라 전교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교과별로 자기 교과에서 가장 밀접한 성교육의 분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과에서는 가족의 구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생물과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지식이나 약물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 등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에서는 성윤리나 인권교육 등을, 사회과에서는 지역에 따른 성문화의 차이나 관계법들에 대해서, 국사과에서는 여성관의 변화나 남녀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더 가르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국어과에서는 성적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길러 주는 교육이나 다양한 매체 속에 나타나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워주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국어 선생이다. 나 또한 성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 작년 초에 몇몇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중학교 성교육 교과별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연구활동을 하면서 과목별로 접목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고 한데서부터이다. 각기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만나서 함께 토론하고 또 여성학을 전공하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세미나를 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있었던 성교육 교사 연수에 참석하여 성교육의 기초지식들을 쌓으며, '성교육, 나부터 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년 1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성의식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주목할만한 사실은 남학생들의 대부분이 성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의 성 사이트나 포르노 비디오테이프 등의 '성 표현물'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주로 성교육에서 임신이나 피임, 성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 남학생들은 자위나 성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성역할에 대해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요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성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단원을 찾고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어 교과 시간에 성교육을 시작했다. 먼저 말하기 단원 시간에 '성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기 - 월경, 고정관념 깨기' 수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아이들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때 여자에게는 한달 이용권을 일주일 더해서 5주로 해 달라'는 주장까지 했을 때는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그 외에도 소나기 단원과 연계해서 '사랑'에 대한 수업을, 말하기나 쓰기 시간에는 자아정체성 찾기, 성적의사결정능력 키우기, 인간관계 교육 등의 수업을 해 보았다. 물론 어느 시간에는 진지하던 아이들이, 또 어떤 시간에는 너무나 산만해져서 포기해 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나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올해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성교육을 해 볼 생각이다. 짧게는 5분 짜리 성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길게는 대여섯 시간 분량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부푼다. **나눔터**





#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여성운동

김이윤상(본 상담소 前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부장, 여성학 강사)

99년은 시청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 큰 변화가 많았다. 수년간 지속되어왔던 방송법 논쟁이 - 아주 만족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 일단락 되었고,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방송계에도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각 방송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나타난 변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이 의무화되고 시청자단체들의 감시기능도 보다 활발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편성시간·구성 등을 바꾸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KBS의 경우 99년 2월부터 시청자 단체가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코너('TV 속으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오랫동안 언론감시운동을 해온 여러 단체들과 함께 본 센터도 지난 한해동안 'TV 속으로'의 기획 및 제작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이번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 시청자 운동단체는 편파보도·방송 내용의 비윤리성(선정성, 폭력, 가학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하여 방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건강한 미디어, 평등한 미디어를 위해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담아내야 할 건강하고 평등한 내용에 대한 제언이다. 옴부즈맨 프로그램, 엑세스 채널, 국민주 방송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본 센터 등 여성운동단체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참여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운동단체가 미디어를 감시하는 것에는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관련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본 센터가 미디어를 감시하는 이유가 보편적 시청자(혹은 미디어 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보편적 일반인'이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함정 때문에, '여성의 눈' 혹은 '여성의 입장'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왔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언론 감시 또한 여성의 눈을 포함한 '다양한 눈'에 의한 감시가 필요한 영역임을 새삼 감

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청자 운동의 초점이 보편적 원칙에 입각한 모니터 중심의 활동에서, 보다 전문적인 모니터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대안적인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제언으로 옮겨지는 지금, 여성운동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는 남성 중심적인 미디어를 감시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를 통해 더욱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기존 틀에서 빠졌던 부분을 첨가하는 것(예를 들어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여성 아나운서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어쩌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미디어를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근본적인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본 센터가 지난 한해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고 양적·질적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남성 중심적인 가치체계, 사고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디어의 내용이 부분적 수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안적 내용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랜 기간 여성운동진영에서 치열하게 고민되고 논의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미디어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지난 한해 여성운동단체들의 방송사 내에서의 선전(善戰)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눔터**



## '99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 성폭력사건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조중신(본 상담소 일반상담부장)

### 1. 행사 취지

93년 세계형사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 발생률 세계 2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은 99년 성폭력사범이 7,273건으로 10월 말 현재 작년 동기간에 비해 10.5% 증가하였는데 강도, 절도 등 IMF 이후 생계형 범죄가 감소 추세인 반면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전국에는 47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6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한해동안 보건복지부 소속 전국 성폭력상담소는 총 24,788건으로 '97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은 강간이 8,317건(33.5%), 성추행이 5,419건(21.9%), 기타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등이다. 이들 피해자 중 가해자를 고소, 고발한 비율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실제로 성폭력상담에서 40% 이상이 법적인 해결을 문의하는 내용인데, 경찰수사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방향성 및 성패를 좌우하므로 상담활동에서 이에 대한 대처와 경찰연계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상담소가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여 1999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개최한 <성폭력사건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는 상담소 상담사례 중 법적 지원한 사건을 취합·분석·자료화하여,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계와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확립의 기틀 마련을 위해 전국 성폭력상담기관 실무자들, 일선에서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제자, 성폭력피해자들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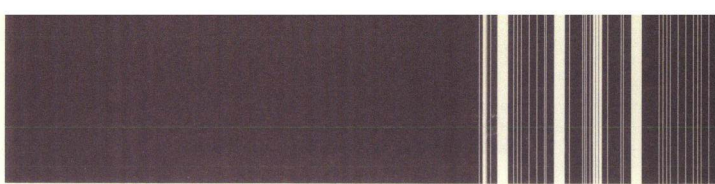
### 2. 간담회 내용

<성폭력상담 현장에서의 경찰연계 현황 및 과제>에서 본 상담소 이미경 부소장은 상담 전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상담소에서 상담 후 경찰연계 후 지원 받은 사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성폭력전문상담자들에게는, ①각 지역 수사기관, 112, 119, 1366 등 공식적인 연계체제 확립, ②해당사건의 명확한 이해 후 경찰연계, ③성폭력

관련법과 경찰조직구조와 수사과정의 숙지, ④사건의 객관적 상황 파악과 현실적 대처 유도, ⑤수사 중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지속적인 추후과정 파악과 심리상담의 필요를 제안하였다. 또, 수사관계자들에게는 ①성폭력상담기관과 경찰관계자와의 공식적인 연계망 형성 필요, ②경찰교육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교육의 의무화, ③성폭력전담 경찰관 제도의 확립, ④진술의 반복 최소화, 어린이 진술의 증거능력확보, ⑤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확대 실시, ⑥장애인 통역과 대질신문 시 특수유리 설치 등의 장비 마련, ⑦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신변안전조치와 비밀보장, ⑧입건여부, 송치여부 등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 제공, ⑨성범죄 수사 및 공판 판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의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박미옥경사는 발제 <최근 성폭력사건의 수사현황 및 경찰 연계 시의 유의점>에서 성폭력사건의 특징은 여성피해자들이 97%이며 순결이테올로기와 피해자유발론 등 사회의 잘못된 통념으로 신고를 꺼리는 점,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의 2차 피해, 증거확보의 어려움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여성인력 선발과 고정 배분, 일선경찰서 조사요원으로 배치, 여자기동 수사반 운영, ②경찰교육에서의 여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전국단위 경찰관에게 직무교육 등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상담원의 역할로는 ①사건발생 초기 위기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②상담 중에 피해자에게 비밀유지 보장, 자기표현 기술을 증진시키는 심리상담을 통해 고소되지 격려, ③피난처 제공, 병원, 법률전문가 연계를 통해 증거확보 등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연계 시의 유의점으로는 ①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의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유의시키고, ②신고 의도를 의심받게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의논하여 대처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③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 후 연계조치를 받도록 하고, ④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배우자의 간통고소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유하도록 제안하였다.





《경찰청의 성폭력 관련 정책》에서 경찰청 본청 수사국 이상원 경정은, 성폭력 범죄의 최근 추세가 퇴폐·향락풍조의 만연, 성 개방화에 따른 도덕성 상실, 피해자의 방어능력 취약, 수치심, 보복 우려 등 신고기피현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 예방 대책으로 ①우범지역 예방활동 강화, ②유관기관 합동 선도 및 단속활동 전개, ③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고 있으며, 검거대책으로는 ①전담형사 지정, 성폭력특별법 적용하여 엄중 처벌, 피해신고, 고소사건 신속·적극 처리, ②여자기동수사대를 성폭력사범 전담수사대로 전용 운영하여 장비보강, 미성년자 윤락 알선, 대여성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강력추진, ③성폭력상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내 여성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①성폭력상담 전담여성 배치, ②상담공간확보 및 환경개선, ③상담기법 교육을 강화하여 상담능력을 제고, ④성폭력 상담전화 (해당경찰서 국번+0118) 홍보 강화, ⑤피해자 비밀보장,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고유도, ⑥성폭력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 유도, 언론매체를 이용한 예방 및 검거활동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교육 강화 대책으로는 ①일선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 교양 실시, ②경찰교육기관 교과목 편성, 인식전환 등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경찰연계에서의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①연계에 할애하는 시간은 상담의 24.2%, ②연계하고 있는 경찰기관 수는 2.2개소, ③연계기관까지의 거리는 도보로 10분 이내가 50.8%, 자동차로 30분 이내가 44.6%, ④담당 부서 및 역할 기능, 담당 부서 실무자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알고 있으나 타 의료기관, 사회 복지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⑤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은 문서화된 정보교환이 적고, 실무자간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이나 간담회가 별로 없으며, 개인적인 관계로 연계가 형성되고 있고, 연계업무가 공식업무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으며, ⑥연계 시 실무자간의 협조로는 경찰관계자 협조 정도가 타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고, ⑦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기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공식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 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 경찰업무에서의 우선 순위로 인한 소극적 개입 / 전담전문인력의 부재 등이며, ⑧연계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의 필요성 / 공식적 연계제도 마련 / 간담회 등 정보교환의 기회 마련 / 전담 부서 설치 / 경찰에 상담소와 상담활동의 적극적 홍보 등이 제안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①상담소와 경찰간의 상호인지도 및 이해

증진, ②연계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전환, ③상담소, 쉼터,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간의 복합적인 연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간, 정부부처 간,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④성폭력관련 정책담당자 및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존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장기적 계획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양혜경소장은 《경찰연계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주제로, ①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의 필요성, ②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자수사관의 확대, ③'99년 2월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지침서 내용의 홍보와 충실한 활용, ④여성관련 범죄 수사업무의 최일선에서 여성들의 인권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포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후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들의 질의응답과 경찰관계자와의 토론, 협의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①경찰들에게 대여성범죄관련 교육을 특강이 아닌 정기강의로 전환할 것, ②대·중·소도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찰교육을 실시할 것, ③성폭력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선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형사당직반 등 전문수사요원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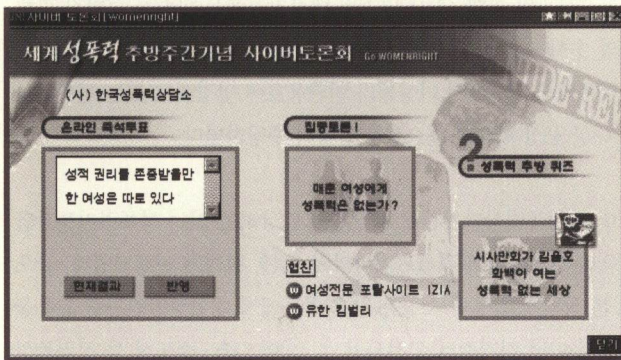
### 3. 성과 및 과제

'97년 성폭력상담 심화 워크샵에서 의료·법률·경찰 등 통합적 지원체계의 확립에 대한 시도가 있는 이후 99년 5월 의료지원체계 심포지엄, 99년 9월 토요법률번호사 전체모임 등과 맥을 같이 하며 경찰연계에 대한 개별적 모색의 자리가 되었으며, 그간 상담소와 연관있던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 같은 진지하고 열의있는 참여로 인해 경찰조직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져 상담 연계시 활용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상담소 단체 실무자들이 상담 시 경찰연계의 공통된 어려움을 함께 협의하였고, 기관 대 기관의 연계망 형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상담소 차원에서든 전체 상담기관 차원에서든 앞으로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듯 하며 이와 연관된 작업의 후속처리(각 경찰서에 관련자료 송부, 여성경찰 명단 확보 및 연계 등)를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 경찰에 대한 협조 및 견제세력으로서 위상을 확립해나가야겠다. **나눔터**



# '99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사이버토론회 "매춘여성에게 성폭력은 없는가"

정진욱(본 상담소 정보사업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넷츠고/유니텔/채널아이/천리안/IZIA(여성전문포털사이트)에서 공동으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사이버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사이버토론회는 "매춘여성에게 성폭력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성적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로서의 권익을 주제로,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분화된 시각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사회각계의 인사들과 일반이용자가 한자리에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유니텔에서는 첫날 게시물수가 100여건을 넘어 토론시작부터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게시판토론과 함께 성폭력추방퀴즈/즉석투표/그림판(김승호기자, 한겨레신문 '미주알')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토론주제에 대해 참여자들 대부분은 그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을 떠나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폭력이라는 것으로 일치되었다. 또 매춘여성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는 글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1955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판결로부터 격세지감이라 할만큼 우리사회의 여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춘여성은 보통의 '정숙'한 여성과는 구

별되어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성관계하는 일이 어차피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성폭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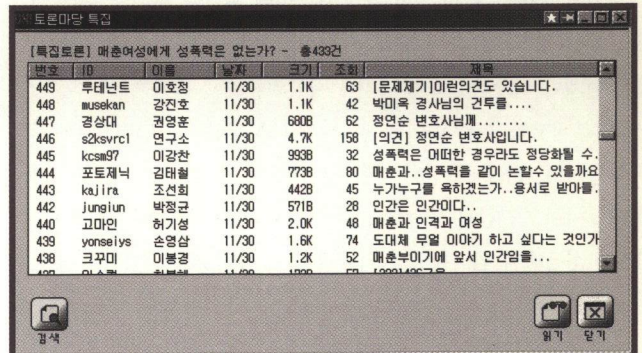
토론주제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게시판토론과 함께 진행된 즉석투표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토론이 진행된 다섯 군데 모두 70% 이상의 참여자들이 누구나 동등하게 성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25-30% 정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여성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 권리를 존중받을 여성은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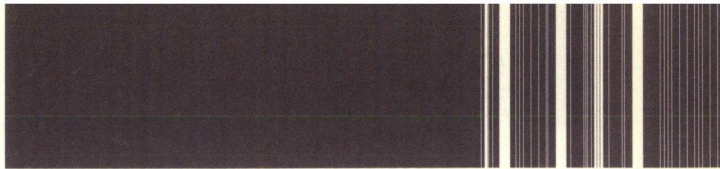
(12월 1일 오전 11시 현재 즉석투표 결과)

	그렇다(%)	아니다(%)	총 참여자수(명)
넷츠고	27.2	72.8	746
유니텔	29.8	70.2	4,963
채널아이	29.3	70.7	123
천리안	27.4	72.6	317
IZIA	26.0	74.0	510

또 여성 참여자의 경우는 83.6%가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 참여자의 경우는 65.6%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 cyber forum cyber forum

연령별로는 10대 74.2%, 20대 73.6%, 30대 64.5%, 50대 73.8%가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여성에 대한 이분화된 시각이 30대와 남성에게 있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유니텔 즉석투표 결과).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의견을 제시한 시사평론가 정범구 박사는 상대방 파트너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자기욕심대로만 하면 부부지간이든, 애인관계이든 성폭력이 된다며 "아무데서나 몸 파는" 여자, 또는 남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결국 박정희를 위대하게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를 용인한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고 반문하고 있다. 또 신낙균 국회의원의 의원은 매춘여성의 성폭력 피해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박미옥 경사는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성폭력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접대부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사건이 해석될 때와 순수한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해석될 때의 사건은 판이하게 달랐으며 수사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일선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정조 관념을,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인지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보다 반항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에 대한 자유의사의 문제로 성폭력범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성폭력은 95년 형법 개정 때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개정되었으나,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모호하고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받을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구분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경찰청 여자기동수사반 박미옥 경사의 의견에서처럼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사건을 수사할 때는 그것이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는지보다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경험의 유무, 저항의 강도 등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분화는 비단 매춘여성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피해여성의 행실에 관한 문제로 귀착시킴으로써 성폭력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규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개개인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남들**



마지막으로 선물은 이미 동이 났지만 다음 성폭력추방퀴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시길!

성폭력은 현재 성폭력특별법과 형법에서 단순히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 )을(를) 침해하는 죄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① 은장도      ② 성적 자기결정권      ③ 남성 우월주의      ④ 국가보안법

※토론자료 : PC통신 - 천리안/유니텔/채널아이/넷츠고에서 go womenright  
인터넷 - 여성전문포털사이트 IZIA(www.izia.com) 토론탈



#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지위

김효선(여성신문 편집국장)

##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지위

### 군사정권

시절이 생각한다. 그 때 '판금'도 서라는 게 있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등 386세대의 필독서들은 상식적인 수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책들이 주로 '판금' 도서였다.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검열과 금지가 되레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카드가 된다.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출간된 얼마 안되어 판금을 당하자, 그 책은 복사, 프린트물로 독자의 품을 돌아다녔다. 최초의 판금 소설이라는 <반노>는 읽은 사람이 별로 없는 20대들에게도 '전설적인' 책으로 이름이 기억된다. 사회 시스템이 신뢰받고 있지 못할 때 금지는 곧 신용보증 KS마크로 통용된다. 관심이 없다가도 금지 됐다면, "아 그거 꼭 읽었어야 했는데..." "야 그거 읽었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개봉 1주일만에 관객 30만이 보았다는 영화 <거짓말>도 검열의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금지의 상업적 프리미엄을 톡톡히 얻고 있는 것이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등급보류를 두 번씩이나 내리지 않았던들, 검찰이 음란물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던들, <거짓말>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영화에 적용된 금지의 프리미엄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열에 대한 것이다. 공진협 시절의 가위질에 대한 혐오증이 가득한 우리 국민들은 영화 내용을 떠나서 검열을 반대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엄연히 검열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영화를 극장에 걸게 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 젊은 국민들은 '악' 소리를 내며 혐오스러워 한다. 이 속에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항도 들어 있다. 심의기구는 모든 나라에 있고, 한 사회의 도덕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의와 금기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에서 축적된 권위주의에 대한 염증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풀리게 만든다. '무조건 싫다'는 <거짓말>은 이 프리미엄을 얻었다. 상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리 짜여진 각본의 일부인 것처럼 해석될 정도로 <거짓말>은 금지와 검열의 피해의식의 파고를 순조롭게 타고 있다.

두 번째 <거짓말>을 돕고 있는 것은 금지된 성에 대한 것이다. 과거 역시 지긋지긋하던 시절이 있었다. 찢꼭지가 나오면 음란이고, 어디까지 나오면 안되고 하는 등등의 금기 속에서 영화의 작품성을 해칠 정도로 '무식한' 가위질이 행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이 시절에 대한 혐오스러운 기억들이 <거짓말>의 거침없는 성 표현을 관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검열문화는 분명 사라져야 한다. 성의 표현은 자유롭게 되어야



#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지위

##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지위

한다. 이 시대에 이 명제들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 <거짓말>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영화 <거짓말>로부터 검열과 금지의 프리미엄을 걷어내고서 보아야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영화는 여러 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여성'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보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대단히 불쾌하고 역겨운 영화다.

이 영화가 금기를 깬다고 하는데, 금기를 깬 공로를 인정한다고 해도, 무엇을 위한 금기 파괴인가, 누구를 위한 금기파괴인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강조되는 "육체의 판타지"에서 그 육체는 남성의 육체를 말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그 영화가 여성상을 진보적으로 그린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여자주인공이 예쁘고 나약하거나, 외모꾸미기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 그렇다. 또 그 영화의 주축을 이루는 새디즘-마조히즘의 구도에서 처음에는 여자가 맞는 쪽이지만, 나중에는 때리는 쪽으로 권력자의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얘기가 이어진다. 새디즘-마조히즘은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으로 봐야하고, 원조교제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주권의 표현이라는 '황홀한' 해석들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여자가 새디스트가 되어 남자를 '패는' 권력을 갖는 것도 남자로부터 '학습'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새디스트와 사랑에 빠져서 맞고 때리는 섹스를 '육체의 판타지'라고 배우게 되고 실천하기에 이른 것을 여성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단 한번도 이런 식의 새디스트적 권력을 선망해 본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또 원조교제가 미성년자의 성적인 권리라고?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인 권리' 밖에 없나? 그것도, 새디스트의 파트너가 될 성적인 자유밖에는? 그들의 인생과 가치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걸 논의로 한 육체만의 세계를 '사랑'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게 미성년자에게 무슨 권리를 보장하는가?

사랑에 빠져서, 육체의 본능에 휩싸여서, 본능에 지배되어서..... 라는 말들이 있다. 그 뒤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여기에 있는 함정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능란하고 광범위한 성적 자유를 극한까지 펼치고 싶은 남성들의 욕망이라는 함정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지가 좋아서 그랬으므로 윤리적 책임이 면제된다), 인간의 본능(본능은 통제할 수 없으니 역시 책임이 없다)이라는 코드가 장치된 함정인 것이다. 여기에 금기와 검열의 프리미엄이 붙어준다면, 순풍에 돛단 듯 하리라.

표현의 자유와 금기의 파괴라는 '진보'의 언어를 우리 여성들이 선뜻 믿지 못하고, 또 믿어서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남**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99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 :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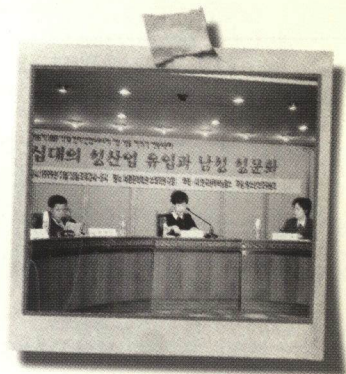
본 상담소는 1999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로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 성폭력상담기관 실무자 21단체 40여 명, 일선에서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계자 12명, 그 외에 여성특위, 서울시 여성개발실, 한국여성개발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법률소비자연맹의 관계자, 성폭력피해자들과 가족, 관련학과 대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계와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확립을 위하여 열린 논의와 연대작업을 하였다.

## 〈'99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사이버토론회〉

제3회 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사이버토론회가 넷츠고/유니텔/채널아이/천리안/IZIA에서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매춘여성에게 성폭력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즉석투표 참여자수만 총 6천7백 여명에 이르는 등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세훈(변호사), 정범구(정치학박사), 이미경(국회의원), 신낙균(국회의원), 강지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정연순(변호사) 등 총 18명의 전문패널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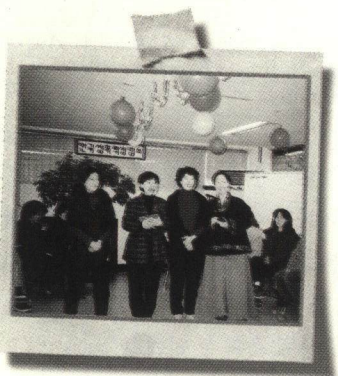
##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성문화〉

제 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를 11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성문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문화와 남성성의 구성(조영미,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남성의 성문화가 십대 여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최정은, 은성원)의 주제 발제가 있었고, 문화적·정책적 측면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KBS '시청자 의견을 들읍시다'〉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에서는, 공중파에서 드라마라는 형식을 통해 20-30대 미혼 여남의 성 이야기를 제 3자가 아닌 주체의 입장에서 주요한 테마로 다룬 KBS TV 드라마 <초대>를 모니터하여, TV에 나타난 성과 사랑에 대해 KBS <시청자 의견을 들읍시다> "TV속으로"에 방영(99년 11월 21일)하였다.



## 〈한해보내기〉

1999년 12월 18일 본 상담소의 손과 발, 머리와 가슴이 되어 상담소를 움직여준 모든 가족들(상담원, 지킴이, 나눔이, 상근자, 회원, 후원회원 등) 60여 명이 모여 한해를 보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를 벌였다. 올해의 공로상은 6기 상담원 서민자, 이영란, 지킴이 박상희, 나눔이 윤지원, 김진우, 토요법률상담 자문위원 이백수 변호사가 수상하였다. 이날은 인턴간사 정종숙, 김영숙, 이소진, 김현정과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부장 김이윤상의 송별식을 겸해 특별한 아쉬움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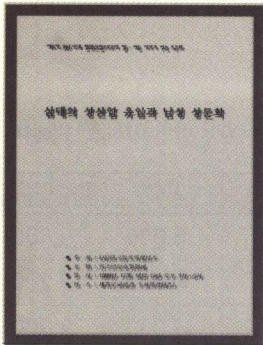
##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폭력없는 사회 가꾸기 토론회 :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담에 대한 통계조사〉

여성폭력추방주간 기간인 12월 10일 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주관으로 <폭력 없는 사회 가꾸기> 토론회가 열렸고, 본 상담소는 여기에서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99년 1-8월의 전체 통계와 8월 상담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통계를 위해 필요한 틀에 대한 논의와 현재의 성폭력 상담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나눔터**



**새로 발간된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성문화 :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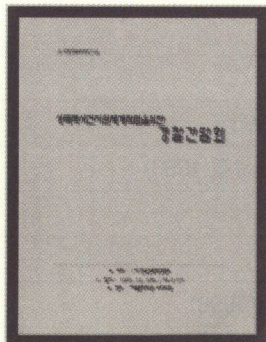


십대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남성들은 십대 성산업 유입 청소년들의 주요 고객이면서도 방치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남성들의 성문화를 진단해보고, 변화를 위한 고리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에 대한 경험과 의식을 중심으로 한 남성의 성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남성의 성문화가 십대 여자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재 우리사회 남성의 성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가격 4,000원

**〈'99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99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본 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 관련 민간단체와 성폭력사건 수사경찰의 연계실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확립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연계지원을 모색하고자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를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본 자료집에는 성폭력상담현장에서의 경찰연계 현황 및 과제, 최근 성폭력사건 수사현황 및 경찰연계 시의 유의점, 경찰청의 성폭력관련정책,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경찰연계에서의 과제를 중심으로), 경찰연계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이 실려있으며,

부록으로 서울지역·경기지역 경찰서 주소 및 전화번호, 전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주소 및 전화번호,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성폭력피해자 권리현장이 실려있다.

가격 : 3,000원

구입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김이운상, 김익성, 던킨도너츠, 삼정레인저M.T.Club, 서민자, 오희옥, 유자인, 이경미, 이덕연, 이미혜, 이소진, 이유미, 이희숙, 장윤경, 정경희, 정유석, 조중신, 진말숙, 현소혜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선경, 김정이, 김준모, 박진숙, 이정미, 전필례, 정은덕, 최은희

**10월부터 12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강남식, 강정옥, 고순례, 권혜수, 김광일, 김미경, 김미숙, 김미주, 김은희, 김인수, 김정희, 김종구, 김준호, 김현란, 김현식, 노미순,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숙, 박희경, 백명자, 백정선, 변은희, 서민자, 안미영,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정현, 오현숙, 오희옥, 유수아, 유자인, 윤용미, 윤정숙, 윤지희, 이경로, 이경미, 이경애, 이규화, 이명선, 이미경, 이소진, 이순례, 이순열, 이연실, 이영분, 이원숙, 이운상, 이은정, 이철원, 이효숙, 이희숙, 임순영, 임종은, 장연집, 장윤경, 장철우, 정성광, 정유석, 정진욱, 조중신, 최동석, 최영애, 최지녀, 한은희, 홍승아, 홍은정

**10월부터 12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고경숙, 고선경, 김경희, 김도희, 김동령, 김미경, 김미경, 김소명, 김순형, 김영미, 김영애, 김은수, 김일륜, 김정순, 김정신, 김춘란, 김현정, 김혜숙, 김화영, 두정학 맹진숙, 민재숙, 박미향, 박순주, 박영원, 박진숙, 배은경, 서천석, 송남두, 송민희, 송성애, 오은화, 우경아, 유숙영, 유승희, 육향숙, 이상근, 이석민, 이선순, 이선아, 이윤미, 이은정, 이재남, 이재인, 이재혁, 이정선, 이정아, 이푸른매, 이효희, 임자영, 전경림, 전범용, 전승완, 정경란, 정경래, 정경아, 정은덕, 정이숙, 조소연, 조정자, 주서현, 차재순, 최옥경, 최유정, 최은희, 최정운, 홍사울, 홍성복 **나눔터**



**상담소 가족들을 위한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합니다..**

메일링리스트란 한 군데로 메일을 보내면 거기에 가입된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메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소 식구들간에 신속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매우 획기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면 매일매일 E-Mail로 상담소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재미있는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식을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상담소), E-Mail주소를 적어 ksvrc@chollian.net로 보내주세요.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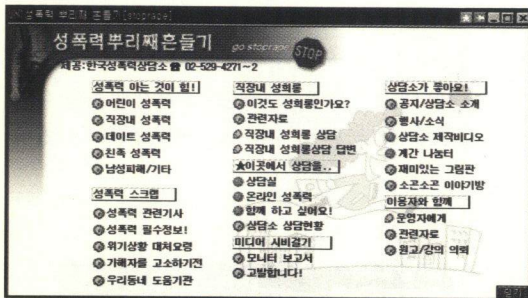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목록**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를 회원·후원회원에게 는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주제	분류	자료명	가격	할인가격
청소년 관련	지침서	건강한 성 만들기 ; 중학생 성교육지침서(1997)	8,000	6,400
	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실태 및 대책(1996)	4,000	3,200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 성문화와 성폭력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	4,000	3,200
		'99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자료집	8,000	6,400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1999)	4,000	3,200
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1998)	18,000	14,400	
어린이 관련	지침서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 어린이성폭력예방지침서 - 부모와 교사용(1996)	2,000	1,600
	자료집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 어린이성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1996)	4,000	3,200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 어린이성폭력 예방을 위한 비디오(1994)	18,000	14,400
직장 관련	지침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여성 :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1998)	2,000	1,600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 일반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1999)	2,500	2,000
	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1995)	18,000	14,400
성폭력 일반	소책자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예방과 대처(1998)	2,000	1,600
	지침서	성폭력에 관한 법률 지침서(1997)	2,000	1,600
		성폭력에 관한 의료 지침서(1997)	2,000	1,600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1993)	4,000	3,200
		함께 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 개소 4주년 기념자료집(1995)	4,000	3,200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실태 및 개정방안 : 개소 5주년 기념자료집(1996)	4,000	3,200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1997)	4,000	3,200
		성폭력 전문상담 교육자료집(1999)	8,000	6,400
		개소 7주년 기념자료집 :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 자료집(1998)	5,000	4,000
		21c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발족기념식 및 발족기념 토론회(1998)	4,000	3,200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 개소 8주년 기념 (1999)	8,000	6,400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1999)	5,000	4,000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공청회(1999)	4,000	3,200
		포르노/미디어/여성 : 21c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 1주년 기념토론회(1999)	4,000	3,200
		'99성폭력추방주간 기념 :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1999)	3,000	2,400

**\*섹슈얼리티 강의\* 동넉출판사 9,000원 / 서점에서 판매**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4/4분기 우수 IP상 수상**

본 상담소가 제공하는 성폭력 전문정보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가 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선일보사가 국내 6개 PC통신업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올 4/4분기 우수 IP로 선정되었다.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는 국내 유일의 성폭력전문정보로, 성폭력의 개념, 피해사례, 대응방법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기상황 대처방법, 성폭력에 관한 법률정보 등 성폭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에는 특히 1991년부터 국내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활동해온 본 상담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와 피해자 지원체계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물론, 국내외의 성폭력관련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에게도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mail 상담실은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지원하는 일반상담실, 상담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의료전문가와 변호사가 지원하는 산부인과 상담실, 법률상담실로 전문화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상담소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온라인성폭력] 메뉴에서는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인구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온라인성폭력 관련자료와 함께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는 PC통신을 통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본 상담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성폭력 관련자료를 이용자와 공유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전환과 피해예방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는 넷츠고,유니텔,채널아이,천리안에서 go stoprape (사)한국성폭력상담소는 <http://www.sisters.or.kr> ☎ 02-529-42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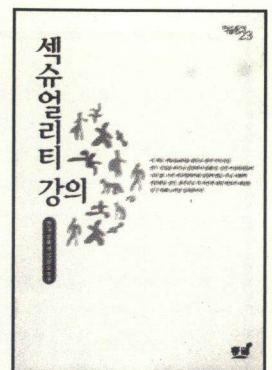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교육부 국내 성교육 우수자료로 선정>**

교육부가 '99년 7월에서 8월에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양호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자료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교육자료의 유형은 비디오로 64.1%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활용도가 높은 비디오자료 121종을 수집, 성교육 내용과 무관한 자료들을 제외한 총 86종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39종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본 상담소가 제작한 청소년성폭력예방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가 성교육 우수자료로 선정되었다.

**<『섹슈얼리티 강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권, 1999)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올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올해 우수학술도서는 98년 7월 1일 ~ 99년 6월 30일 출판된 것으로서 301개 출판사가 심사·선정한 1천 564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9개 분야 265종이 선정되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 국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한은희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차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강학중·문혜란·민병진·오세민·윤장순·이상엽·이종걸·최영애·최은순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지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기독교윤리학/김희은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래·권성희·김삼화·박성화·박찬운·안미영·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재호·장철우·장갑생·장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최현희 경찰/김강자·이금형 ●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권양숙·정연옥 심리학/김정규·이윤로·이강호·이혜성·장연길·정남운·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한인영·현혜순 상담심리학/연혜수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정영숙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외과/오세민·주수호 임상병리학/강정옥·문혜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양광순·이나미·이수경·전지홍·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선·서은미·이은미 ● **재정**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임종은 대한적십자사지문위원/윤장순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프리랜서/여난영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경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명구·김홍순·원용진·전성호 기자/백지연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소장/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강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린 사회학/박진숙 ● **소장** 최영애